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송 미 경[†] 지 승 회 조 은 경 임 영 선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경험과 부모-자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합의에 의한 질적연구법(QR)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결혼생활 5년 이상인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인 모 8명의 면접내용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 모는 가족 간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만든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와의 상호작용방식은 놀이나 학습지도와 같은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애정표현이 더 많았고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어머니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줄 것인지 한국사회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주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외국인 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정체성 인식은 '한국인'이었다. 넷째, 외국인 모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역할로 '한국에서의 적응돕기'와 '좋은 부모 되어주기'를 꼽고 있었다. 다섯째, 외국인 모는 언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표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사례들을 대상으로 보다 생생하게 그들이 겪었던 경험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여 대응하며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상담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법,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경험

[†] 교신저자 : 송미경,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흥진BD
Tel : 02-2250-3090, E-mail : mksong@kyci.or.kr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2003년에 8.4%에서 2005년에는 13.6%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1.9%로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이다. 그 중 농·어촌의 경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이 전체 결혼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 인구전문가들은 10-20년 내에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으로 떠올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형인, 2006).

다문화가정 중 상당수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의 노출,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시댁의 관여, 사고방식과 습관 그리고 성격의 차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결여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김상임, 2004; 왕한석, 한진수, 양명희, 2005; 안현정, 2003; 윤형숙, 2005; 이혜경, 2005).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결혼하여 한국에 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을 자녀의 출생이라 꼽는 외국인 모가 많았고, 자녀의 출생으로 엄마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자녀는 한국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거점이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김민정, 2002; 김상임, 2004). 그러나 전형적 자녀의 육아 시기는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 시기와 겹쳐져 혼란과 자녀 육아의 고충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을 갖게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자녀들의 양육

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모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양육환경에 대해 고충을 호소한다(인봉숙, 2002). 외국인 모 자신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한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부재로 자녀교육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충격과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은 자녀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친구들과 다른 외모, 외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사회의 편견과 또래들의 따돌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다. 10명중 1명꼴로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자는 10명중 2명 정도라는 통계 수치(조영달 외, 2006)는 다문화가정 문제와 결혼 이민자 개인이나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가족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부모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들은 과거에 비하여 많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기존연구도 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국제결혼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과 관련해서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학교생활정도를 다루고 있다(안현정, 2003; 이태욱, 2006; 설동훈 외, 2005; 조영달 외, 2006).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정

의 모는 한국에서의 적응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결과들은 이 사회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나 지원이 요청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모의 실제 삶과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인 면, 대처기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생생한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가 지각하는 적응과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과 도움 요인이 무엇이고, 부모자녀관계 등이 어떠한지를 외국인 모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연구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거친 결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결혼가정보다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결혼가정 자녀교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연구의 초점을 외국인 모의 경험으로 맞추었다. 실무자의 면접 내용은 그들의 추론이 들어가진 하였지만 그들의 관찰내용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은?’ ‘해당 지역 다문화가정의 특성은?’ 과 같은 면접 문항들은 수정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의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과 나이의 제한 때문에 구체적인 심층면담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면접 내용을 본 조사에서는 제외시켰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한국에서의 삶과 자녀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서, 대처기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대상자의 내적 경험을 알아보려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통적인 양적 연구로는 개인 내적 경험에 대한 자료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Hill, Thomson, & Williams, 1997).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며, 전통적인 양적 접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의 내적 경험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 언어로 생생하고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해준다(Eisner, 1991; Miles & Huberman, 1994; Polkinghorne, 1994: 지승희, 이혜성 2001 재인용). 특히, CQR은 주관적 경험내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써, 현상을 기술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며 적은 수의 사례가 심도 있게 연구되는 특징(Knox, Hess, Petersen, & Hill, 1997; 이진희, 윤호균, 2001, 재인용)을 지녔기 때문에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 양육 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자녀와의 상호작용방식은 무엇인가?
 - 외국인 모는 자녀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 외국인 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가?
2.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모-자(녀)관계 경험은 어떠한가?
 - 다문화가정의 부모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논의와 동의 과정을 통해 경험자료 내용을 범주화하고 감수자에게 검토를 받는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을 사용하였다(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질적 연구는 전통적인 양적 접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참가자의 내적 경험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 언어로 생생하고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해준다(Eisner, 1991; Miles & Huberman, 1994; Polkinghorne, 1994; 지승희, 이해성, 2001, 재인용). 특히, CQR은 주관적 경험내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써, 현상을 기술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며 적은 수의 사례가 심도 있게 연구되는 특징(Knox, Hess, Petersen, & Hill, 1997; 이진희, 윤호균, 2001, 재인용)을 지녔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실제 삶과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인 면, 대처기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내적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분포가 많은 지역(전북/전남, 경북/경남,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충남/충북)의 결혼이민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 연구 목적을 밝히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추천받았다. 연구대상은 1) 결혼생활 5년 이상인 자로 2)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3)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인 모 8명으로 평균연령은 36.8세, 평균 결혼기간 10.5년이다.

분석팀

분석팀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합의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상담심리전문가이며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임상사회복지 박사과정 1명, 상담관련 석사학위소지자 1명으로 구성하였고 감수자는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담심리전문가로 청소년상담 분야에서 상담경험과 연구경력을 지닌 상담자이다.

예비조사

다문화가정 관련 센터와 학교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정 담당 실무자 3명, 외국인 부모 2명,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 2명, 다문화가정 자녀 2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결혼가정보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결혼가정이 한국생활 적응과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으로서의 적응의 어려움은 외국인 부와 외국인 모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만,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모가 자녀양육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부모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실무자의 면접 내용은 그들의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생생한 경험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의 관찰 내용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면접문항을 수정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	나이	국적	직업		학력	결혼 형태	결혼 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자녀	가족형태	배우자		
			이주전	현재							나이	직업	학력
1	40	필리핀	회사원	영어 강사	대졸	중매	11년	상	딸(11세) 아들(10세) 딸(8세)	시어머니 남편 자녀3명	49세	세차	초 중퇴
2	33	필리핀	비서	영어 강사	대졸	중매	11년	상	아들(11세) 딸(9세) 아들(7세)	남편 자녀3명	36세	재단사	고졸
3	38	일본	노동자	주부	고졸	중매	11년	중상	아들(11세) 딸(9세) 딸(6세) 딸(3세)	남편 자녀4명	49세	농부	무학
4	40	필리핀	아나운서	영어 강사	대졸	중매	7년	중상	딸(7세)	남편 자녀1명	47세	농부	중졸
5	36	일본	학원 강사	주부	대졸	중매	10년	중상	아들(9세) 딸(7세) 딸(4세)	남편 자녀3명	37세	자영업	대졸
6	39	중국	유치원 선생님	방과후 교사	대졸	중매	14년	상	딸(14세) 딸(13세)	시어머니 남편 자녀2명	49세	농부	중졸
7	39	필리핀	판매직	영어 강사	대 중퇴	중매	10년	중상	아들(11세) 아들(9세)	남편 자녀2명	46세	농부	고졸
8	30	네팔	없음	주부	고졸	중매	10년	중	아들(10세) 딸(9세)	남편 자녀2명	42세	노동자	고졸

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자녀들의 경우는 나이가 어려 아직 의사표현도 충분하지 못하고, 출생이후 자신의 성장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심층면담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면접

인터뷰 내용을 얻기 위해 사전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팀의 합의과정을 거쳐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대한 질문들로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양육경험, 부모-자녀관계 경험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 3명이 직접 다문화가정 외

표 2. 면접용 질문지 내용

연구문제	질문내용
1.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 그 때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 자녀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과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 어머니의 사랑 표현에 자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해 아이가 궁금해 하나요? - 어머니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나요? - 자녀가 “나는 한국인이야, @@ 인이야?”라고 질문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2.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모-자(녀) 관계 경험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어머니는 자녀의 생각이나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 그럴 땐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 그렇게 해주면 아이의 반응은 어떤가요?

국민 모가 있는 곳(집 또는 관련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내용이 녹음되어 요약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 총 8사례에 대한 면접내용을 녹음한 후 완전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전체 질문지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다 면접용 질문을 기초로 하여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선 각자 1개의 사례를 읽고 영역을 만든 다음, 합의팀 전원이 모여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나머지 사례 역시 각자 영역을 만든 후, 합의팀이 함께 모여 토의를 거쳐 합의한 후 영역을 최종 결정하였다.

영역부호화

영역 부호화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에 관한 정보자료군’인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이승은, 정남운, 2003). 합의팀은 각 사례의 축어록마

핵심개념

핵심개념은 사례들 간 간결하고, 명확하고, 비교 가능한 형식으로 참가자들의 단어로 ‘편집’하는 과정으로서 연구자의 가정이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중복은 피하

고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핵심개념을 만들어야 하며, 그 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Hill et al., 2005). 이 과정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개념들을 구성하였다. 핵심개념을 구성할 때는 내담자 말을 근거로 연구자의 추론을 배제하고 사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며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구성한 후, 함께 모여 합의하였다.

영역과 핵심개념 감수

모든 사례에 대한 영역과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과정에서 감수자는 축어록과 합의팀의 영역 부호화/핵심개념 합의 자료를 확인해서,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핵심개념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였다.

교차분석

교차분석은 각 영역에 대한 핵심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사례별로 각 영역에서 나타난 핵심개념들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하나의 범주들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범주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Hill et al., 1997). 모든 사례에 대한 영역 및 핵심개념이 확정된 후, 사례들 간에 유사성이나 패턴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범주들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교차분석 감수

교차분석 자료에 대해 감수자의 감수를 받

았다. 감수자는 각 영역의 핵심개념들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핵심개념들이 적절하게 범주화되었는지를 검토해 주었다. 합의팀은 감수자가 검토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고, 합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결 과

합의와 감수의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영역은 모두 8개이다. 각 영역마다 8개의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4사례 ~ 7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2사례 ~ 3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variant)’으로 표시하였으며(Hill et al., 1997),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경험

양육상의 어려움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곱 개의 범주로 확인되었는데, 첫째, ‘가족과의 양육방식 차이’(전형적), 둘째, ‘사교육에 대한 부담’(전형적), 셋째,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형제끼리 다투어서’(전형적), 넷째, ‘자녀가 왕따 되거나 괴롭힘 당할까 봐 걱정’(전형적), 다섯째, ‘나 혼자 양육을 감당해야 해서’(전형적), 여섯째, ‘언어 때문에 자녀들을 잘 도와주지 못해서’(전형적), 일곱째, ‘외국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서기가 주저되어’(드문)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

외국인 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첫

표 3.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 교차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 경험	
영역과 범주	응답빈도(사례수)
1. 양육경험	
A. 양육상의 어려움	
1) 가족과의 양육방식 차이 때문에	전형적(7)
2) 사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형적(6)
3)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형제끼리 다투어서	전형적(6)
4) 자녀가 왕따 되거나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	전형적(4)
5) 나 혼자 양육을 감당해야 해서	전형적(5)
6) 언어 때문에 자녀들을 잘 도와주지 못해서	전형적(4)
7) 외국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서기가 주저되어	드문(2)
B. 자녀와의 상호작용	
1) 애정표현	전형적(7)
2) 놀이	전형적(6)
3) 학습	전형적(4)
C. 자녀에 대한 기대	
1)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일반적(8)
2)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다.	전형적(4)
3) 건강했으면 좋겠다.	전형적(4)
2. 자녀의 정체성	
A. 모의 문화 교육	
1) TV, 사진, 책 등으로 가르쳤다	전형적(5)
2) 모의 나라를 방문했다.	전형적(4)
B. 자녀에 대한 모의 정체성 인식	
1)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전형적(5)
2) 한국인이면서 외국인이기도 하다	드문(2)
3) 종교관으로 인한 정체성	드문(2)
3.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의 생각	
1) 공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형적(4)
2)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전형적(4)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 - 자녀관계 경험	
영역과 범주	응답빈도(사례수)
1. 다문화가정 부모역할	
1)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전형적(5)
2)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형적(5)
3) 엄마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가르친다.	드문(3)
2.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1) 대화나 표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일반적(8)
2) 자녀가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준다.	전형적(6)
3)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갈등이 있다.	드문(2)

째, ‘애정표현’(전형적), 둘째, ‘놀이’(전형적), 셋째, ‘학습’(전형적) 3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보여 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모의 긍정적인 표현 즉, 안아 주거나 옷어주는 등과 같은 표현은 자녀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자녀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거의 없는 가운데 그나마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친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일반적),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다’(전형적), 셋째,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드문)라는 범주로 구분되었다. 외국인 모는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기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기대도 컸다.

모의 문화교육

어머니 출신국가 문화에 대한 교육은 첫째, ‘매체를 통한 간접체험(전형적)’과 둘째, ‘어머니의 국가를 방문하는 직접 체험(전형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외국인 모는 TV, 사진, 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출신국가 문화를 교육하거나, 한국에서는 인사 정도의 모국어를 가르치다가 친정나들이를 할 때 자녀와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문화를 체험

하게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출신국가와 문화에 대해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자녀들이 궁금해 할 때, 설명해 줄 상황이 될 때 자연스럽게 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어머니 출신국가에 대해 잘 알기도 전에 미디어와 여론을 통해 알려지는 기사를 보고 어머니 국가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될까 염려하기도 했다.

자녀에 대한 모의 정체성 인식

자녀에 대한 모의 정체성 인식은 크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전형적)와 ‘한국인이면서 외국인이기도 하다(드문)’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이라는 국적에 의한 규정도 있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것에 대한 염려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려면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인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도 했다. 또한, 자녀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하는 외국인 모들은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동시에 받은 것이 당연한데 한국인이라고만 한다는 것은 속상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히 할만한 것은 자녀의 정체성인식에서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종교의 결혼 정책에 따라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아버지 나라도, 어머니 나라도 아닌 종교적 의미의 보다 넓은 세계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의 생각

자녀교육에서는 ‘학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전형적)와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전형적)

라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외국인 모는 자녀들이 커서 자신의 적성에 맞고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국과 비교할 때 한국사회는 공부를 너무 강요하고 있다고 여기며 학교에서 자녀들 수준에 맞게, 역량에 맞게 공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표현하고 있었다. 언어가 잘 안되어 자녀들의 학업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또 하나의 부담을 지워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형적으로 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관은 자신이 자라면서 받아왔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모의 모-자녀관계 경험

다문화가정 부모역할

다문화가정에서의 중요한 부모역할은 첫째,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전형적), 둘째,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전형적)’, 셋째, ‘어머니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가르친다’(드문)로 분류 되었다. ‘좋은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을 참아주고,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해야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꾸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가져야 하는 일관성 있는 사랑과 훈육의 모습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앓을까 염려하는 외국인 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방식으로

는 첫째, ‘대화나 표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된다’(일반적), 둘째, ‘자녀가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준다’(전형적)로 분류되었다. 비록 언어적인 표현은 부족하더라도 비언어적인 표현에 의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는지 느끼고 있었다. 친구 관계나 학업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며 자신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파 같이 울기도 하지만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름대로 조언해주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외국인 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양육경험과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외국인 모가 겪는 적응의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다문화가정에서 필요한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 경험

첫째, 외국인 모가 호소하는 양육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그 중 가족 간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외국인 모가 자라온 배경 즉, 사회적 문화배경과 가정환경,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역할 모델링 등에 영향을 받은 교육관, 가치관, 신념 등이 한국의 가족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정해놓은 양육 상의 제한 규칙이 할머니나 아버지 앞에 가면 용인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 공부만을 강요하거나 손자를 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대우하는 것 등이었다. 이때 외국인 모는 다투게 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체념하거나 소극적인 태도 취하기, 가족과의 논박하기 보다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등 대처하는 방식 또한 다양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자녀들은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화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허밍타잉(2005)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모들이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자녀교육방법, 자녀에 대한 기대까지 서로의 견해가 달라 갈등을 겪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물론, 한국인 남녀의 결혼도 각 집안의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모가 호소하는 양육의 어려움은 일반 한국인 모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과 공통되는 특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양육방식의 차이라고 해도 완전히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의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에 있어서 고려되어지는 학력과 가치관의 차이도 훨씬 더 크고,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을 주장하거나

배우자의 문화와 양육방식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 무엇보다 언어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학령기와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자녀의 발달단계를 충분히 도울 수 없으리라는 점이 연구를 통해 예측되었고 이러한 본질적 차이는 외국인 모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이것이 자녀들의 적응문제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갈등상황과 그 해결에 대해서는 외국인 모와 그 가족 양쪽 모두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둘째, 자녀와의 상호작용방식은 놀이나 학습지도와 같은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신체적 애정표현이 더 많았고,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전형적으로 외국인 모는 안아주기, 뽀뽀해주기 등 신체적 애정표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다.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자녀가 있기 때문이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의 출생으로 엄마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외국인 모에게 자녀는 한국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거점이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김민정, 2002; 김상임, 2004).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학습지도도 어렵고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 힘들고 자신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녀들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봐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 모는 자녀양육과정에서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에게 무능력하게 비춰지는 모습과 이로 인해 자녀관계에 벽이 생길

까하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박성연 외, 2007; 오성배, 2005), 본 연구의 참가자들도 복잡한 심리적 불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감은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자녀들 역시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게 될 위험이 있고, 외국인 모가 현재도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서 오는 자책감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지역사회 내에서 언어교육 뿐 만 아니라 학습 지도를 위한 안내,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하겠다.

셋째, 어머니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줄 것인지 한국사회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주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외국인 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정체성 인식은 ‘한국인이었다’.

사회구성원들과 다른 외모를 지니고 또 상이한 문화충돌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정체성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금연, 2003; 조영달 외, 2006). 따라서 외국인 모에게는 자녀에게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회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주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혼란스럽고 심각한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외국인 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면에는 자녀가 부당한 대우와 왕따를 경험하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화를 함께 배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문화 시대의 인적 자원으로 교육시키는 일일 것이다. 외국인 모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포

기하지 않고 한국문화와 동등하게 교류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외국인 모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외국인 모와 그 자녀들의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구성원과 일반 한국학생들의 반편견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외국인 모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역할로 ‘한국에서의 적응 돕기’와 ‘좋은 부모되어주기’를 들고 있었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훈육, 사랑과 인내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세계화를 대비하여 다문화 가정의 이점인 외국어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 등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망도 함께 표현되고 있던 하지만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어머니 나라에 대한 교육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야 하니까 한국 학교에 잘 따라가도록 돕는 것이 모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자녀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가정만이 가진 특수성의 표현이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온전히 한국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김정원, 2006; 안은미, 2007; 이영주, 2007)와 일치한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상이한 두 문화체계가 접촉했을 때 각각의 문화는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해야 한다. 외국인 모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용기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 조바심을 버리고 당당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부모교육의 제공, 멘토의 활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모는 언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표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언어적인 표현은 부족하더라도 비언어적인 표현에 의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자녀의 욕구와 소망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과 부모 자녀간의 안정애착 정도는 자녀의 발달과정과 이후의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광웅, 1977; 옥정, 1998; Morrissey, 1997; Damon, 1998).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부모와 자녀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외국인 모의 자녀들이 현재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표정과 간단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언어능력이 발달하고 심리적으로 민감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부모자녀의 관계형성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10-20년 내에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떠오를 다문화가정에서 필요한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종래의 양적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실제 사례들을 대상으로 보다 생생하게 그들이 겪었던 경험을 수집하였다. 전통적인 양적 연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참가자의 주관적 경험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여 대응하게 하며,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상담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분포가 많은 지역에서 연구대상자를 표집 했으나 대상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다 보니 외국인 모의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이 편중된 감이 있어 연구의 일반화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참가자인 외국인 모와 면접 시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면접을 통해 보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감정표현과 정서적 의미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실제로 외국인 모가 한국에서의 적응과 자녀양육의 과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든 외국인 모일수록 실생활에서 도움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본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을 일반화 하는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

에서는 한국어 뿐 아니라 연구 참가자들의 모국어 혹은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편파(bias)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합의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절차를 반복하고 감수자의 감수를 받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질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과 편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모의 양육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인 남편의 입장과 양육경험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모의 다양한 국적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이 고려된 연구와 한국인 남편의 양육경험도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한국 청소년상담원.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1997). 부모발달과 부모역할. 서울: 교육과학사.
- 김미영 (1998). 모계사회의 남성과 여성. 서울: 민속원.
- 김민정 (2002). 필리핀 농촌마을의 권력관계와 성차, 그리고 모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7-48.
- 김애령 (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 34-45.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원 (2006).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문제와 다문화 교육. 국회도서관보, 43(5), 통권 325호, 29-39.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인 (2006). 미국의 다문화정책과 교훈. 國會圖書館報, 43(5), 통권 제325호, 16-28.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경환 (2007).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청소년. 서울YMCA 제19회 청소년상 심포지엄. 서울: YMCA.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3.
- 미래인력연구원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

- 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정책 방안 발표회 자료집.
- 민경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 모색 워크숍 보고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박성연, 성숙자, 김상희, 김지신, 박용임, 전춘애, 안지영, 임희수, 이사라, 한세영, 이주연 역 (2007). 부모자녀관계. 교문사.
- 박수원 (2003). 가족체계 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중보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인권정책연구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정 (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으로.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육 정(1998).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 국립국어원.
- 유준수 (2005). 국제결혼 가정문제 고찰. 한일장신대 한일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 정남운 (2003). 초심상당자의 소집단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41-460.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이진희, 윤호균 (2001). 통찰명상 중의 경험내용에 대한 질적분석.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05-120
- 이태옥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영광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광주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회지, 28(1), 73-106.
- 인봉숙 (2002). 한일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효영, 김경신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통권 166호, 189-203.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지승희, 이혜성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애착이론적 조망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55-73.
- 최경숙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충욱 (2007). 다문화시대와 청소년. 서울YMCA 제19회 청소년상 심포지엄. 서울: YMCA.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다문화청소년 이해론 매뉴얼
-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2007). 인구 동태 조사.
- 하밍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성렬 (2006). 한국문화와 혼혈인에 대한 배타성. 한국청소년상담원.
- Ahn, H. (1999). *Juggling two worlds: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shmore R. D. & Del Boca F. K (1981).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 J.: LEA
- Berry, J. W., Poo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Cauce, A. M. Reid M., Landesman, s., & Conzaes, N. (1990). Social support in young children: Measurement, description, and behavioral impact, In I. G. Sarason, B. R, Sarason & G.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New York: Wiley.
- Christina L. Shute & Brian H. Spitzberg. (2003). *Intercultural Couple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Honolulu, HI, June 12-1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amon, W.(ed.) (1998).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N. y.: Belmont, CA: Brooks/Cole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agly, A. H & Kite, M. E. (1987). "Are Stereotypes of nationalities applied to both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53, 451-462.
- Eagly, A. H. & Steffen, V. J. (1984). "Gender Stereotypes stem from the distribution of women and men into social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35-754.
- Eisner, E. W. (1991).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Macmillan.
- Erikson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Norton & Company.
- Felner, R. D., Gim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77-290.
- Fishbein, S. (1977). Intra-pair similarity physical growth of monozygotic and dizygotic twins during puberty, *Annals of Human Biology*, 4(5).
- Galinsky, E. (1987). *Six stages of parenthood*. California: Addison Wesley.
- Hetherington, E.M., Stouwie, R., & Ridberg, E.H. (1971).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 rearing related to three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60-176.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Kaplan, H. B., Cassel J. C., & Gore, S. (1983).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44(2), 120-126
- Knox, S., Hess, S. A., Petersen, D. A., & Hill, C. E. (1997). A Qualitative Analysis of Client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Helpful Therapist Self-disclosure in Long-term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274-283.
- Ladner(1984). Providing a healthy a healthy environment for interracial children. *Interracial Books for Children Bulletin*, 15, 7-8.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orrissey, M. (1997). Mor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Counseling Today*. 39(7). ACA.
- Pinson-Millburn(ed.) (199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6), ACA.
- Polkinghorne, D. E. (1994). Reaction to special section on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510-512.
- Stallybrass, O. (1977). Stereotype. In A. Bullock, & O. Stallybass(Eds.), *The Fontana dictionary of modern thought*. London: Fontana/Collins.

원 고 접 수 일 : 2008. 1.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8. 3. 19
계 재 결 정 일 : 2008. 5. 9

A Study on the Parental Experience of a Foreign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Mi-Kyoung Song Seung-Hee Jee Eun-Kyung Cho Young-Sun Li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research exercise on parent-offspring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of rearing children of foreign mothers. The subjects studied were 8 foreign mothers who were able to communicate in Korean, married more than 5 years, and those who had school-aged children. The results from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alyses were follows: First, the foreign mothers perceived a number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family in regard to rearing their children. Second, the mutual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were mostly done by showing affection Third, the mothers thought that the main identity of their children was Korean. Fourth, mothers thought that a parent's role in a multicultural family is to 'help them fitting into Korea' and 'being a good parent'. Fifth, the foreign mothers noted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ir children's feelings through conversation and by their facial expressions even when they experienced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Kore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n important source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multicultural parents and related counseling.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parent-offspring relationship, experience of rearing children

부록. 교차분석의 예

1.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A. 양육 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A-1) 가족과의 양육방식 차이 때문에

4. 우리 신랑 아이 어리니까 안 돼... 아이 시키지 마. 아이 안 돼. **야! 밥 먹고 나서 저기 부엌 갖다놔. 우리 신랑은 아이고~ 아기 시키지 마 몰라. 그래서 우리 싸워요. 지금부터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아.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커서 다 알아. 7살인데 부엌 갖다 놓구. 남편은 몰라 그러면 힘들어... 지금도 힘든데. 그럼 아이들도 힘들어 딸도 힘들어. 우리 싸워요.
3.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씩씩하고 놀려면 그런 게 필요 하는데 근데 시어머님이 꼭 흠 만지면 그런 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수련회 같은 거 보내려고 하면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해서 그거 못시키고... (중략)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딸 보다 아들을 좋아해 가지고, (중략) 근데 저하고 경쟁하는 것 같이... 제가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것 아닌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키우고 싶은 데 못했었어요.
2. 내가 없으면 말 안 들어요. 내가 안 된다하는 건데 내가 없으면 그 때 할머니랑 아빠랑 봐줘요. (중략) 어쨌든 다 해 봤어. 다 하면 내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숙제 같은 거 안 되면 그 때 내가 혼내는 거야.
1. 나는 아이들 공부 많이 하는 것 싫으니까, 만약에 나는 시간만 있으면 너 공부 하지 마. 그냥 우리 놀아. 놀자. 남편은 이거 싫어해요. 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공부 못해요. 진짜 안했어요. 무슨 공부 하는 지 머리에 안 남아요, 아이들이 편해야 그래야 공부해. (중략)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이 놀러가고 싶으면 숙제 다 하고 놀러가 그래요. (1번 사례)

A-2) 사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7. 되게 걱정 많아요. 여기 교육 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애들 학원 안보내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살다니깐 애들 중학교 가면, 여기서 시내에서 나오면 그다음에 학교는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꾸 걱정이예요. 또 교통! 교통도 그렇게 걱정하고. 애들도 공부하는데 어떻게 잘 하는데, 집에서 자기가 못하니깐 어떻게 가르치는데 아이는 그게 걱정이예요.
8. 특히 여기 한국 분들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저는 더 급한 거예요. 아이들... 그리 말 잘하고 가정에서도 해주는데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그리나오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애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저것 배우고 배우려면...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도 뭐 영어 학원, 미술이라도 하나 보내면 안 되냐고 그러면 그런 거 남들 한다고 다하냐 그래서 또 싸움 나요. 내가 영어 같은 경우는 **한테 미술학원 영어 선택해 가지고 특기적성으로 그냥 아주 뭐 일주일 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 학교에 보냈었고, 피아노를

여자 아이니까 되게 치고 싶어 해요. 자기 학교마치면 다 가깝아요... (중략) 자기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해서 아빠한테 이야기 하면 난리 나니까 몰래 두 달 보낸 적도 있어요. 생활비에서 Ep고 비싼 거 말고, 비싼 데는 못 보내고 한 달에 4만원 정도 이런데 가는 거 이제...

6. 여기는 솔직하게 여기 교육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시골이라... (중략) 시골에서 아무리 해봤자 뭐,,, 그렇잖아요, 배우는 것도 별루 없고, 나중에 큰 세계로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 데 사회 나가서 여기서 배우면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3년 전에 원래 중학교 때 보내려고 했는데, 이왕에 보낼 거 엄마가 빨리 보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중략) 처음에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반에 3등 안에 다 들어갔어요...

A-3)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형제끼리 다투어서

2. 학교 들어가면서 말을 안 들어,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생각만 하는 경우 이해가 안되죠. 애들끼리 싸울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5. 아무래도 막내가 제일 어리니까 그게 큰애들은 제일 힘들어 해요. 양보를 하라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면, 먼저 막내가 오빠 언니를 때렸는데, 근데 얘기니까 봐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 억울하다... (중략) 그거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애가 그러면 또 울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 상황이고.
1. 아이가 말을 안들을 때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서 큰 소리치고 혼내죠
6. 우리 지금 작은애가 지금 중국 가서 자면 내가 중간에서도 못 자게 해요. 자기가 가운데서 자고 언니가 저쪽에서 자고, 엄마 옆에 못 오게 해요. (중략) 큰 애가 작은 애한테 엄청 막 잘 챙겨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동생을 질투하고 동생을 싫어해요, 동생 엄청 사랑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A-4) 자녀가 왕따 되거나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

4. 우리가 외국 사람이니까 다른 한국사람 그런 거 외국사람 아이들 잘 안 놀아요... (중략) 한국 사람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아이들과 얼마 안 놀아요. 그냥 혼자 놀고... 왕따처럼 안 놀아요. 그래서 우리 걱정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커서... 지금은 아이들 그런 거 내가 많이 들어요. 피부 시켜머면 ‘아, 애 피부가 시켜매’ 이런 거.
1. 학교에서 친구들은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 거야 괴롭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2.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큰 애가 한국말 잘 못 한다. 그래서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중략) 그래서 친구들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너 한국사람 맞냐?’ 그 때 우리 아이가 영어만 하는 거 싫었어요... (중략) 그래서 우리 집에 계속 영어하면 “엄마 왜 영어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인데 왜 영어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8. 자기 스스로가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자기 혼자되면 난 왕따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울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희 친정 쪽을 좀 여기서 공부하다가 안 되면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먹었었어요.

A-5) 나 혼자 양육을 감당해야 해서

3. 근데 남편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애들한테... (중략) 혼자 키우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한국말도 못하잖아요... (중략) 다 제가 해야 돼요. 아빠가 너무 자기 일하고 있잖아요, 뭐 일하는 방해가 되면 혼나고... 좀 아빠한테 협조해달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8. 항상 늦게 오고 이렇게 하면 좀 서운한 게 많아요.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중략) 자기가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나는 자기가 좀 나서 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해야지 내가. 제가 다해야 해요. 나까지 안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6. 남편하고 시부모님은 아이한테 신경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한국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시어머니는 더욱 더 그렇고, 시골분이니까.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은 적은 없고,.. 저는 말을 빨리 배운 것 때문에 제가 정보도 얻고 제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아이처럼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1.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서 힘들었어요.

A-6) 언어 때문에 자녀들을 잘 도와주지 못해서

7. 진짜 저도 외국 엄마인데,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줄까 하는데 한국말 부족하니깐 저보다 애들 더 한국말 잘해요. 그렇게 진짜 한국 어머니들보다 잘하고 싶은 그렇게 저 그렇게 진짜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애들을 잘 가르쳐야하는지 그렇게 답답한 마음가지고 있어요.
2. 그 때는 1학년 때 내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인데 근데 못 도와주면 너무 속상해요.